



## 대한광통신,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 청약률 109.77% 기록!

▶ 1,400만 주 모집에 총 1,536만8,267주 청약

▶ 모집 자금 763억 원 달해... 시장 적기 대응해 중장기 성장 모멘텀 마련할 것

[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 확인 후 기사 검토 부탁드립니다.]

<2018-05-30> 대한광통신이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 '완판'에 성공했다.

국내 유일 광섬유 모재 제조업체 대한광통신(주)(010170)은 28~29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한 기명 식 보통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결과 청약률이 109.77%로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.

1,400만 주 모집에 초과청약을 포함해 1,536만8,267주가 청약됐다. 지난 23일 확정된 최종가액은 5,450원이다. 대한광통신은 구주주 배정 물량 완판을 통해 총 763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.

업계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제시한 중장기 비전이 시장에 '통했다'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. 대한광통신은 전세계 광섬유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▲설비 고도화,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을 통한 광섬유·광케이블 생산성 향상 ▲특수광섬유 양산을 위한 설비 및 시설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.

대한광통신 오치환 대표이사는 "이번 유상증자는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"며 "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, 시장과 꾸준히 소통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한편 발행 예정 주식수를 초과하는 1,536만8,267주가 청약돼 이달 31일부터 예정됐던 일반공모는 진행되지 않는다.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내달 20일이며 21일 신주 상장을 통해 유상증자 일정이 최종 마무리된다.

☎ 자료문의: 대한광통신(주) 윤권중 팀장 (031-489-5110), 김동훈 과장 (031-489-5113)

(주)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(010-8909-4042), 김물결 선임 (010-5104-3756)